

제48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정보통신인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48회 '정보통신의 날' 을 맞아 정보통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다른 공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119년 전 오늘은 이 땅에 근대우편이 태동한 날입니다. 산업화의 인프라가 되는 우편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화의 흐름에 앞서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땀 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기 동안 선진국을 뒤쫓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의 물결에는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보화의 선두국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을 기념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국민 모두가 협력해서 이룩해낸 자랑스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IT산업은 수출과 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반도체, CDMA와 같은 IT산업이 무역흑자의 70% 이상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이 내일의 변영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장 분야를 발굴해 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10년 후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과 지능형 로봇, 디지털 TV, 포스트 PC,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IT분야의 생산규모를 400조원으로 늘리고, IT 수출 1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찾아 적극 육성해 가겠습니다. 기술력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술로 승부하는 벤처기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정치 또한 IT기반 위에서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비용은 줄이는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 역시 IT와 접목해서 세계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IT 기술을 활용하면 교육분야에서도 방법과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참여정부는 앞선 물류기반을 바탕으로 IT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서 동북아의 변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보통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정보화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어느 계층, 어느 지역도 정보화의 물결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어촌, 신세대와 기성세대, 모두가 정보화의 혜택을 고루 누려야 합니다.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는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격차가 없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정보화는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고, 하루에 오가는 이메일만도 1억 2천만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보통신인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보통신은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만한 선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선구자의 길은 외롭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 열매 또한 풍성합니다. 인재육성과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꿈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우리 모두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비전을 갖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